

〈 검정고시를 마친 자퇴생이 쓰는 글 〉

안녕하세요. 수능 공부 하느라 미루고 미루다가 검정고시 결과가 나올 시기정도에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참고로 이 글을 쓰는 시점은 결과 발표일까지 13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2017년도 11월 29일 정도에 자퇴를 한 현역입니다.

이 글은 자퇴에 대해 사람들께서 고민하는 글, 자퇴생으로서 조언을 하는 글입니다. 뭐 자퇴 공부법이나 특수한 자료는 아니므로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다른 분들의 글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환경 특성상 수시로 대학을 가자고 생각한 순간이 없었습니다..중학교때부터 정시로 가자고 마음을 먹어서 수시에 대한 조언은 제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원래부터 금머리여서 자퇴 했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쓴 글 봐주세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주 묻는 답변을 제가 따로 정리해봤어요!

(인터넷이나 담당 기관 선생님께 질문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Q1. 제 현재 등급이 n등급 정도인데 독재나 재종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작성자님은 학원을 다닌적이 있나요?

A1. 저희 집이 가족수도 많고 중학생, 대학생 언니 여동생이 위아래로 있고.. 할머니랑 분가해서 그런지 돈 나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 따로 학원은 재종이나 독재는 다닌적 없고 집에서 했습니다. 독서실은 3달 다녔는데 그 밀폐된 공간이 저랑 맞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아래에서 말할 것이지만 뭘 택하더라도 단점은 있습니다.

재종을 선택한 경우의 단점(제 주위엔 안 맞는 선생님들 계셔서 자습하기도 애매하고 시간 많이 날렸대요), 독재를 택했을 때의 단점을 종이에 써보시고 본인이 그래도 그나마 대처 가능한 단점들이 많은 쪽을 택해보세요.

Q2.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친구관계/시간/다른 문제들로 자퇴하고 싶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A2. 저 역시도 부모님이 많이 보수적이신 분입니다.

자퇴에 대한 인식이 특히 좋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국립 대학교, 저희지역에서 제일 성적컷이 높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다면 휴대폰도 모든 지원도 다 끊겠다. 라는 말씀일 정도로요.

물론, 부모님마다 가치관과 살아오신 방식들이 달라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우선 부모님께서 왜 자퇴를 반대하실까? 라고 부모님의 마음
부터 파악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파악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 대안을 제시해야죠.

저희 부모님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퇴를 하면 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혼자 있게 되면 인터넷 중독 등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
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검정고시가 끝
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월요
일과 주말을 제외한 날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을 30분씩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고
요.

제게 자퇴 상담을 받은 한 친구의 이야기도 빌려보자면,
자퇴 자체를 꺼려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 부모님 시대에
서 자퇴 인식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그 친구는 우
선 고민 끝에 내린 대안이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시험공부도 열심히 했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몇 개월 동안 그 모습을 근거로 설득하
여서 자퇴를 허락받았고요.
사실, 사람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굳혀진 가치
관이나 생각을 변화하기는 힘듭니다.

다들 자퇴 설득할 때 당장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퇴가 바로 답을 내리기 힘든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원래부터 좀 옛날 사고방식을 가져오셨는데 저도 설득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하고도 인식이 '좋아지기' 까지는 한 3개월이 추가로 더 걸렸고요.

Q3. 자퇴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불이익 같은 점이 있나요?

A3. 우선 저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단순한 궁금함인지 아니면 시선이 나쁠까봐 하는 걱정인가요? 시선이 나쁠까봐 걱정이 되어서가 이유라면 추가로 할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걸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주변 인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상황은요.

할머니께서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지금도 학교가 왜 싫냐고 질문 하십니다. 제 아는 동생은 작년에 자퇴를 했는데 친척들에게 지금까지도 말을 못합니다. 친척들이 뭐라 할까봐 라는 이유로요. 또 어떤 친구는 학생들을 마주치기 두려워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돌아다니는 시간대에는 밖에 절대 안나갑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서는 가끔 절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꽃을 보고 누군가는 예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싫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또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꽃을 보며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는 응원 혹은 부러움,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떻게 사람이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써요?
저도 시선 많이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선 때문에 소중한 나 자신을 잃지는 말자고요.
우리는 뭐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Q4. 제가 고등학교 n학년에 모고 등급이랑 내신 등급이 m점
정도 하는데/친구관계가 이러이러한데/(그 이외 이유)
자퇴하는게 맞을까요?

A4.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면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후회가 남습니다.
저는 중국집에서 늘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 특유의 맛을 맛볼
수 없어서 후회하고, 짜장면을 택하면 짬뽕 특유의 맛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워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를 택하면 최소
한 가지는 잃습니다.

그렇지만, 종이나 메모장에 선택지를 적어놓고 그것의 장,단
점을 적어가며 내게 맞는 길을 찾아가고 그나마 덜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맞는 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학교가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교
밖이 오히려 쉼터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퇴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글에 대해서는 보통은 위에서 한 말을 합니다. 또한, 후회하더라도 그때의 선택을 한 자기를 너무 탓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누구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더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한거니까요.
엄마도 친구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소중한 나 자신이 한 선택이잖아요.

Q5. 검정고시 난이도 주관적이어도 좋으니까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해요..누구는 쉽다하고 누구는 어렵대요 ㅠㅠ

A5. 이걸 인터넷에 질문하면 나오기는 하지만 자주 묻길래 답할게요. **검정고시는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수능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제 경험상 모든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배경지식만 있다면 고득점도 가능한 시험이라고 봅니다.

수학의 경우 현재 수능 교육과정 기준으로 수학1,수학2 까지만 나옵니다. 과학 사회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고요.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국영수는 수능 준비하듯이하시고 암기과목은 본인 판단 상 적절한 시기에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시험 시작 5분전까지 ~~똥 얘기 하면서 언너들 어랑 놀았는데 합격했어요.~~

Q6. 대학을 갈 마음은 없는데 자퇴생들은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이 아닌 현실 속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학 주로 어디어디 가요?

A6. 제 주위에 자퇴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꿈드림 센터를 다닌 덕에 주변 진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제 주변은 전문대를 수시로 가거나, 자격증 준비를 합니다.

건축 설계사/베이킹/미용/물리치료 쪽으로 진로를 설계하더라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간호/미용이 많았어요. 또 승무원을 희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저랑 비슷한 학습 수준을 가진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는 4년제 대학교의 정치외교 혹은 청소년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딱 이렇다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Q7. 자퇴하고 수능 준비하는 거 리스크가 있지 않아요? 대학교에서도 안 뽑으면 어떻게 해요? 자퇴생은 내신/생기부가 없잖아요ㅜㅜ

A7. ~~저희 엄마와 언니가 한 질문과 일치해서 정어 가는 질문 아네요..!~~

사실 수학적인 수치로만 따져봐도,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는 정시가 수시보다 비율이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시를 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속한 학교가 수시로는 SKY 입학하기 거의 불가능한 지방 일반고였고, (이때까지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신 특성상 한번 실수하거나 결과가 좋지 못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중학교 시절 부터 걸렸습니다.

그게 싫어서 저는 모험인걸 알면서도 정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말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수시로 가는 걸 택하더라도, 자퇴하고 정시를 택하는 것 둘 다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번 질문 봐주세요!)

두 번째에 해주신 질문은 이건 목표하는 학교와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정시 일반전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의 경우 완벽한 수능성적과 저는 자퇴생이므로 봉사시간 40시간을 채우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 n% 혹은 면접을 보는 대학교라면 말이 달라지겠지요..제가 알기론 검정고시 혹은 수능 성적을 비교내신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대학교 전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Q8. 제가 지금 자퇴생인데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매일매일

계획과는 다르게 놓고 있어요 ㅜㅜ

A8. 너무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는거에 집착 하지 않길..
물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노는 날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공부하고 성적 받아내는 기계가 아닌걸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당신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셔서 주어진 쉬는 타임일 수도 있어요. 나태해지는 날이 많다면,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차분히 그려보세요. 처음에 먹은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 꿈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바뀌어나가면, 훗날 미래에 변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미래가 불안한건,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정해지지 않았기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잘 생각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미래의 전제를 '혹시 망하면, 잘못되면 어찌지?'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닐지.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전제를 잘 될거야, 안되면 어때!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Q9. 저 이제 자퇴 할 예정 / 했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9. 우선, 나이 대 평균이 현역분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19

살, 만으로는 생일 그런 조건들 따져서 평균 18세라고 한다면
요. 제가 보기엔 아직 어린데, 어린 나이에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셨잖아요. 정말 멋집니다. 응원해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설령 자퇴를 후회하더라도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작은
존재였는데, 나름 합리적으로 알아보며 결정을 했으니깐요.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 당신도 응원하고
모든 분들 다 응원해요.